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오주승



오늘은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모두 끝난다. 다른 때 같으면 대한민국 5년을 이끌

경증전정이다. 만약 대통령 취임 전 특검 결과가 발표되고,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정

기권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당선자 시절 또는 대통령 취임 직후, 일종의 허니문 기간 동안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번 대선을 두고 '응징 선거' '기묘한 선거' '그림자 선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응징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

의 실정, 즉 참여정부의 그림자 때문이라는 그림자 선거론도 그럴싸하다. 도덕성이

최장집 고려대학교수는 이번 대선을 '최악의 대선'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11월 한 토론회에서 "올해 대선의 특징은

있다"면서 "이 점에서 최악의 대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방향타 역할을 했던 호남의 표심은 선거 기간 내내 침묵을 지켰다. 호남인들은 범여권의 분열과 이명박 후보의 독주라는 무감동의 선거판에서

차선,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제임스 레스턴(1909~1995)은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7대 대선이 치러지는 날 새삼 이 명구가 가슴을 울린다.

시중 BBK로 얼룩진 형편없는 대선전이었지만 그래도 선택을 외면할 수는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선거다.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시설

한 표의 선택이 국가의 명운 좌우한다

선택의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삶든 좋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누구가를 선택해야 한다.

광주·전남의 민심은 역대 대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광주·전남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대선에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은 여차피 실종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렸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이 대선은 물론 향후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게 됐다.

전남 잇단 조선타운 투자유치 기대 크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지난 17일 4개 조선타운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 6월과 8월 16개 조선타운 투자협약 체결 후 세 번째다.

3차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부산의 STACO(주) 등 영남권 4개 조선타운 투자협약 총 투자규모는 572억원에 이른다.

전남 조선타운은 이미 부지가 100% 분양됐으며 수주 잔량은 현재 200억3천만 달러에 달한다.

무엇보다 전남조선타운이 울산, 거제와 중국 등 국내외 조선타운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의 정국은 예단하기 어렵다. 누가 당선되든 파장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탈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위원회 60% 안팎의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우려하고 있다.

투표는 법률에 보장된 권리이자 신성한 의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선거밖에 없다.

우리는 법률에 보장된 권리가 신성한 의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선거밖에 없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오피니칼럼

차영호



'라이온킹'이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폭발력을 갖지 못한 채 이렇다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막을 내렸다.

지 못했다. 그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사람의 창의력 때문이었다.

문화예술교육과 뮤지컬 '라이온 킹'

국내에서도 다원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원은 늘고 있지만 현실은 다원 예술에 대한 정의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 그렇다만 근본적인 예술지원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적자원의 양성과 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다.

은편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주동식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된지 한달이 넘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하루라도 빨리 명실상부한 호남권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지역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던 말인가. 처음 개항 시에는 도시 외곽이었다가 도시 확장으로 도심속의 공항이 되면 당연히 더 외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무안국제공항, 큰 시각으로 보자

내용 등이 담긴 '무안국제공항이용항공사업자제정지원조례'를 제정중이며,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사에 대해서는 관광객 1인당 1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수 없다. 그동안은 뛰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가정법을 동원하는가.

미술품 경매, 소장자 위탁 작품만 판매하도록 해야

미술품은 일반 거래도 있지만 대부분 경매를 통해 사고 파는데 솔직히 그림에 대한 관심보다 경매에 대한 관심이 더 뜨겁다.

그러다보니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이런 투기꾼들이 경매가를 마구 불러대 미술품에 거품이 끼고 건전한 미술품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無等鼓

"신에게 반드시 힘을 얻겠다는 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제발전을 이뤘던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든 참모 하우아 말로 오늘날 책사 중의 책사로 꼽는데 주저할 이는 없을 것이

책사(策士)



TV드라마 '이산' 속 책사(策士) 홍국영이 세손(정조) 편에 서겠다고 고백하는 대사다.

만들었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끌었다.

Table with 2 columns: 광 叻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특하면 사료값 인상...양돈농가에 피해 고스란히 들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 농가에

▲이명진·광주시 동구 대의동